

문화 편견 이야기

자기한테는 매양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편견을 주면서 오늘 보니 당신은 식사를 하면서
수저는커녕 한 손도 아닌 두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며 어이없어 하였다.
마침, 그 날은 점심 메뉴로 상추 보쌈이 준비되어 우리 직원들은 왓지떨하면서 두 손으로 상추쌈을 싸 먹었던 것이다.

문화의 차이는 때로 커다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구상에는 나름대로 각자의 문화에 따른 생활 습관이 있는데,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야만인 같다고 하는 등 우리 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다보면 차츰 문화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

필자가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인 데다 처음으로 해외 현장에 부임하고 보니 열대 지방 특유의 작열하는 태양과 드넓은 고무 농장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환경이 너무도 많아 모든 것이 낯설었다. 특히, 식사 때가 되면 약 7,000여 명의 현지 근로자들이 바나나 잎으로 짠 밥을 먹기 위해 작업하던 현장 옆에 모여 수저도 없이 이슬람 전통에 따라 오른손으로 밥을 주물러서 비벼먹는 광경을 보며 처음에는 문화적 이질감에 내심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 사무실에서 내근하던 현지인 작업 반장에 대해서는 항상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현지의 우수한 건설 근로자로 선발되어 우리나라에 현장 체형 연수를 다녀올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고, 개인적으로도 필자를 가장 잘 이해해주었다. 그런 그도 식사 습관만은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사무실로 밥을 가지고 와서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잡담을 하며 오른손으로 밥을 주물러 주먹밥(?)을 만들고 심지어는 생선 가시까지도 깨끗하게 발라가며 맛있게 밥을 먹곤 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그에게 식사를 할 때는 수저나 포크를 쓸 것을 수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 반장이 현장에서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생겨 필자에게 보고를 하려고 평소에는 오지 않는 한국인 직원 식당으로 급히 오게 되었다. 그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슨 일인가 하여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필자를 보는 순간 보고할 생각은커녕 멍하



이병섭
금호건설 해외TFT 부장
bigbawoo@hanmail.net

니 정신이 없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않고 한동안 필자를 응시 하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매양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편견을 주면서 오늘 보니 당신은 식사를 하면서 수저는커녕 한 손도 아닌 두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며 어이없어 하였다.

마침, 그 날은 점심 메뉴로 상추 보쌈이 준비되어 우리 직원들은 왓지떨하면서 두 손으로 상추쌈을 싸 먹었던 것이다. 물론 회고도들은 왼손을 뒷일 볼 때만 사용하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무안하기도 하고 어색하여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은 한국인의 특별한 날로 두 손으로 식사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후 필자는 그가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손으로 주물러 맛있게 식사를 해도 뭐라 할 명분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건설 현장은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세계의 여러 문화와 상호 공존해야 하고 수많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공통적 이해가 형성돼야 하지만 아직도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상대에 대한 정보나 문화적인 배경을 좀더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보기 때문인데 상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상대적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시각에서 보라는 뜻이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진정 모두가 하나되는 지름길이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